



# Skip the Postdoc

- 미국 NIH에서 포스트닥 생략 프로그램 시작 -

(NIH launches a new program to skip the postdoc)

**KEYWORD** 포스트닥, 연구비

이남기 / 포항공과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부&물리학과 / nk.lee@postech.ac.kr  
 Nam Ki Lee / School of Interdisciplinary Bioscience & Bioengineering and Dept. of Physic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현재 대부분의 박사 졸업자들은 이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포스트닥을 하는 것이 거의 정례화 되어 있다. 점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포스트닥 마저 길게 하면,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현재 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및 포스트닥 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7,8년은 소요가 된다. 사실 화학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생물학의 경우 많은 연구

분야에 있어서 포스트닥만 5년 이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독립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자가 좀 더 일찍 본인의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포스트닥 과정 없이 바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미국국립보건원 (NIH)이 내년부터 포스트닥 과정이 필요 없

다고 판단되는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NIH는 최근 2011년 가을에 우선 약 10명 정도를 선발하여, 1년에 25만불씩 5년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수여 대상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지 1년 이내의 연구자로 한정되며, 한번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NIH는 향후 5년 동안 약 6000만불의 연구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연구비 수여 대상자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NIH director인 Francis S. Collins는 “이 awards는 뛰어난 젊은 연구자가 training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들이 이른 시점에 매우 독창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젊은 연구 인력의 해외유출이 많은 편이고, 특히 포스트닥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젊고 유능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연구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비가 있다는 것은, 여러 모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

